

한국문화교류 소식

6호 2012년 12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 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ICKC가 큰 일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2월, 하와이 ICKC 창립대회에 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고 9월에 연변에서 개최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40여명의 ICKC 회원이 참가하여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기획재정부 인정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 것 또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ICKC가 명실 공히 국가가 인정한 공익법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일로 여러분의 후원이 보다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2년을 마감하면서 ICKC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2013년, 여러 회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하시고 거주국에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수행하시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이 광 규 드림

자메이카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



권 지선

미국 뉴욕 The New Preparatory Middle School 교사

올해로 삼년차가 되는 한국어 교사 권지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뉴욕 퀸즈 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뉴욕 그레이트넥 사우스 하이스쿨에서 파트타임 수학교사로 일을 하다가 뉴욕 한인 교사회를 통해 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풀타임 교사로 일하기를 바라던 저에게 한국어반 수업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만의 교실이 생겼고, 저만의 학생들이 생겼고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알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메이카 학생들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 힘들 것이라고 걱정해주는 주변의 소리조차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시작해 보니 학교는 곧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고 70% 정도의 학생들이 무료로 점심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

습니다. 수업시간에 친구가 괴롭히면 일어나 달려가 때려 줘야 하고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알고 있는 욕을 충동원해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영어나 수학도 아닌 외국어 수업은 낙제해도 괜찮다는, 가정에서 부터 생긴 상식들을 뒤집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데서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길 바라고 계셨지만 학생들은 뉴욕 자메이카라는 지역사회를 벗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꿈조차 꾸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좋은 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뒤져서 한국에서 발전한 인터넷을 지하철, 길에서 사용하는 모습, 로봇들이 한국 여기저기서 교육용으로 또는 카페에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 학생들은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서 살지 왜 뉴욕에 왔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관광 명소들을 보여주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의 광고를 보고나서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김치와 한국음식을 “에오~~” 하면서 가지 않게 여기던 아이들이 한국 요리법을 보고 건강에 좋은 점들을 프로젝트로 공부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K-pop을 소개하면서 소녀시대 뮤직 비디오를 보여주고 K-pop 스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는 소녀시대나 다른 K-pop 음악들을 찾아서 듣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또 K-pop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방과 후 수업으로 K-pop 댄스를 가르쳤으며, 작년에는 ‘Multicultural Night(다문화의 밤)’이라는 문화 행

사를 계획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아리랑과 거위의 꿈을 한국어로 노래하고 소녀시대와 2NE1의 춤을 추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원의 도움으로 부채춤을 배워 공연도 하고 전통의상 패션쇼도 하면서 단 세 번 뿐이지만 한복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제가 교실에 걸어둔 한복을 보면 “저거 공연 때 본 건데...”라고 하며 예쁘다고 말해주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옥 사진을 깔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 옵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전통문화 배우는 수업은 못 하고 있지만 한국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아서 방과 후 수업을 열어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울도 없는 제 교실에서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춤 연습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태권도 수업도 하고 있는데 작년 레지나 임 사범님이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절도 있는 발표는 강당을 항상 시끄럽게 만들던 장난꾸러기 학생들도 모두 집중시켰고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태권도와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그 후로부터 학생들이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과 같이 방학 때도 태권도를 배워 오렌지 벨트를 딴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위해 20대 컴퓨터를 구비하고 올해부터는 20개의 iPad를 사용해서 학교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도 없는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에세이를 씁니다. 아직 다른 언어에 비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없고 한국에서 개발한 전자책들도 iPad에서 열 수 없어서 많이 연구해야 하지만 한글 읽기와 단

어 공부 등을 iPad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업을 하고 나면 아쉬웠던 점들이 생각이나고 한국어 수업에는 관심도 없이 저나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기 바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로 읽고 쓰는 학생들이 생기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저에게 와서 신나게 얘기해주는 학생들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뉴욕에서는 비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중학교로는 우리 학교가 처음이었는데 요즘은 한국어 반이 한국 교포학생들 만이 아닌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반이 생기고 나서도 한국어가 학생들의 수준도 다양하고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질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각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힘을 내어 한국어 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뉴욕 시 평균과 비교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학교를 없애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 반이 없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기로에 있다 보니 올해에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힘쓰고 계시는 모습을 본받아 저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기사

뉴욕시 중학교에 첫 정규 한국어반 개설

한인 학생들이 상당수 재학 중인 뉴욕 퀸즈 플러싱 JHS189 중학교에 2012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정규반이 처음 개설되었다. 이에 한국어는 현재까지 학교에서 제 2외국어로 가르쳐왔던 스페인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현재 8학년 중 한 학급을 시범 대상으로 지정해 31명에게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총 4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JHS189 중학교는 수 년 전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고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 가을학기부터 이에 정규과목으로 편성한 것이다. 한국어 수업을 맡은 윤세웅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언어 뿐만 아니라 타인을 공경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인간 관계 형성법 등 단순히 언어가 아닌 예절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_ 미주 중앙일보 2012.09.13.



LA지역 공립학교 태권도 프로그램 수료식

-15개 학교 1,670명 참여, 태권도 기량 뽐내-

LA지역 공립학교 태권도 프로그램 수료식이 12월 8일 페어팩스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LA한국문화원이 지난 2010년 도입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참가학교도 처음의 9개 학교에서 올해는 총 15개교로 늘었다. 참가 학생 수만 1,670명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는 10주 과정의 태권도 과정을 이수한 15개 공립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또 이 프로그램 진행에 공헌한 LAUSD산하 방과 후 프로그램 전문기관 '비욘드 더 벨(Beyond the Bell)' 등의 관계자들에게 LA 총영사관이 마련한 감사패와 LA한국문화원의 공로패가 수여됐다. 출처_ 미주 중앙일보 2012.12.09.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

10월 2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06호에 의하여 ICKC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 지정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회원들이 낸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동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스페인합작 '한방병원진료 센터' 설립 추진

10월 25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한·스페인합작 한방의료 사업"을 위한 L.O.I 서명이 이루어졌다. ICKC박의근 재정위원장(P&H대표)이 양국의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3년, 스페인에 양국 공동 투자 현지 법인을 설립, 진료 센터를 개설한 후 의료 진료 사업을 시작하고 한방 강의와 교육, 한방약품과 식품의 R&D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는 한국의 한방 의료 기술을 유럽에서 공식으로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스페인의 파트너는 카탈로냐 의사협회, VIC CITYT와 VIC대학이며 2013년 봄에 한국에서 정식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ICKC 11월 문화탐방, 경복궁

11월 14일 오후 3시, 문화해설사의 진행으로 20명의 회원들이 경복궁을 탐방했다. 늦가을 날씨라 조금 쌀쌀했으나 회원들을 위해 김성열 회원((주)슈페리어 사장)이 선물로 주신 목도리 덕에 더욱 따뜻한 탐방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저녁 식사는 ICKC 전영섭 감사의 초대로 늦가을에 느낀 가을 정취를 함께 나누며 회원 간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제7회 경희사이버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지도 체험수기 공모전 후원

본회가 후원한 제7회 경희사이버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지도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11월 28일(수)에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다. 김길남 대표와 위호인 홍보위원장, 김태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2012 활동 및 2013 사업보고를 겸한 송년회 개최

12월 5일 수요일, ICKC 2012활동 및 2013 사업보고를 겸한 송년회가 충무로 대림정에서 개최되었다.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회원이 모여 ICKC 발전과 회원 간 친목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2013 문화탐방 프로그램 안내

월/일	문화탐방 장소	비 고
03/24	인왕산 탕춘대성곽	서울
04/08	보토현과 성북동천	서울
05/14	안산과 연희궁터	서울
06/11	마리소리골	홍천
09/10	연변	중국
10/08	응봉과 낙산	서울
11/12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

【기타 안내】

1. 회비 : 서울지역(50,000원), 지방(100,000원), 국외(별도 안내)
2. 행사 날짜 : 해당 월 둘째 주 화요일
3. 연락처 : ICKC 사무국 전화 : 02-2285-1070

※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변경 및 추가)는 개인 이메일, 분기별 발간되는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분

2012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특별 재정 후원금 보내주신 분

강정모, 고용규, 권영호, 김성열, 김영규, 김원갑, 김정민, 김정배, 김정부, 김정수, 김제방, 김청룡, 김호일, 김홍석, 목상수, 박경명, 박관용, 박용남, 박익근, 박재만, 박태원, 서영택, 손대오, 송현철, 신진문, 여형구, 오건환, 유병화, 유자호, 이경훈, 이명국, 이석복, 이인재, 이현목, 전영섭, 정영숙, 정해일, 조오달리아, 허재희, 황영숙

총액 : 164,300,000원

□ 월 회비 보내주신 분

강재근, 구병진, 김용구, 김정일, 김정택, 문영호, 박원출, 성효동, 위호인, 이대근, 이용선, 이종길, 이한설, 이향구, 장만기, 전영섭, 정현관, 정진화, 조준연, 표재순

총액 : 9,760,000원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축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06호

기부금 지정단체 승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나눔

에프스케이데

press.knou.ac.kr

이 세모에 우리는

무수히 흔들리는 손길들

떠남으로서 얻는

이 풍요한 결실의 의미

살을 비비며

살을 비비며

살아 있다는 것을

휘파람처럼 속삭여주는

저온(低温)의 축복

우리가 진정 행복하다는 것은

조금은 쓸쓸한 것임을

조금은 그리운 것임을

그러나

다치지 않고

그러나

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노을빛이 태어나는 고장에서

홀연히 다가와

비명처럼 일깨워주고 떠나는

이 세모에 우리는



위 작품의 원시는 1990년에 출판된 유자호 시인의 제2시집 '짧은 사랑'에 수록되어 있는 '이 가을에 우리는'이라는 시이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송년 모임에서 송년시 낭송 요청을 드린 바, 유자호 시인께서 ICKC 회원 모두가 따뜻한 축복을 받길 기원하면서 원시를 조금 고쳐서 낭송해 수신 것을 수록한다.